

서호인의 '소설처럼'



북해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찾다 -우다영 장편소설 '북해에서'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리스 비극에서부터 작거리의 마당놀이까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재미 있는 이야기는 여러 사람을 홀려왔다. 많은 사람들은 재미있는 이야기의 흠뻑에 가까이 빠져들었다. 최초의 이야기는 아마 말 그대로 이야기였을 것이다. 입에서 귀로, 귀에서 생각으로, 그 생각이 다시 입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구전(口傳)이라고 부른다. 문자를 쓰기 시작하고 인쇄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야기는 이제 글로 남겨진다. 그러나 문자는 상당 시간 종교적·사회적인 쓸모로 북부하였다.

그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글자가 사용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소설'이라는 장르는 근대 문화의 소산으로서, 소위 부르주아나 즐길 수 있는 소설거리였다. 소설의 시대 이후 얼마 있지 않아 이야기는 더 세분화 더 강렬하고 더 빠른 매체들을 만난다. 이제 이야기는 티브이, 영화, 인터넷, 오디오(OTT)를 통해 퍼져 나간다. 소설은 그 틈바구니에서 헛기침과 마른기침을 반복하며 제 몫과 명을 다하고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야기의 힘은 여전히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기어오른다. 차 한 잔하는 자리나 혹은 술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도 모두 이야기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 흥을 더욱 돋운다. 또한 이야기는, 소설이나 영상의 외피를 쓰지 않고, 만인의 시간 속에 간직된 각각의 사연을 발설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말소씨가 있던 없든 우리는 누구나 이야기를 갖는다. 소설에서 발달과 전개가 절정과 결말에 영향을 미치듯, 누군가의 앞선

이야기는 그의 현재와 미래를 만든다. 한 사람의 생애가 거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게 호메로스의 홍길동이란 해리포터든 간부든 상관없이.

우다영의 신작 소설 '북해에서'는 상관없이 보이는 이야기가 서로에게 투입하는 이야기다. 이야기가 이야기를 안고, 이야기가 이야기에게 영향을 미치며, 또 다른 국면에서 이야기가 이야기를 밀어내는 이야기다. 첫 이야기는 '나선'의 것이다. 나선에게는 군인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젊은 장교들이 자주 집안 들락거리며 술자리를 갖는다. 아버지는 아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류하며 어쩌면 나선의 남편감을 찾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나는 기분을 저도 모르게 즐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곳에서 어떤 중위는 늘 정치적인 답변만 거듭한다 다른 장교와는 다르게, 자신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다. 그건 자신의 현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이야기다.

중위의 할머니 이름은 오경, 북해의 국경지대에 살던 오경은 갑작스러운 폭격으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어느 군인에게 쫓겨 죽을 위기에 처한다. 오경과 군인은 무너진 수로에 갇힌다. 둘 사이는 작은 구멍만 나 있는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그 구멍으로 군인은 비상식량인 비스킷을 전달하고, 오경은 그가 자신의 가족을 죽인 자라 확신하지만, 배고픔 때문에 그의 선의를 받아들인다. 군인은 벽 너머의 오경에게 철사를 쪼아 쫓을 만들어 주고, 비스킷 통도 맡긴다. 그걸 반갑아 간수하자 제안하지만, 오경은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비스킷을 넘기지 않는다. 군인은 철사에 굽혀 파사풍이 생기

고, 굶주린다. 기적적으로 구출된 오경의 눈에 보인 군인의 시선은 너무나 왜소했다.

나선과 중위의 이야기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둘은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존재할 뿐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북해'가 가상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나선과 오경의 이야기도 실재하지 않는 북해와 같은 이야기로 느껴진다. 특히 중위가 전하는 자신의 할머니 오경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 이야기로, 그 진실과 허위의 격차를 듣는 사람이 알 수 없다. 이 알 수 없음은 나선의 이야기 또한 갖고 있는 형질이다.

나선의 오빠는 군인으로서 죽었지만, 사실 그는 군수품인 캐첩과 땅콩버터를 운반하다 사고로 죽었다. 기어코 살아난 이야기와 허망하게 죽은 이야기가 겹치면서 소설은 북해로 나아간다. 두 이야기의 구전자는 이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 이야기는 듣는 자로 인해 완성된다. 둘은 소설의 마지막에 와서야 현관 앞에 잠시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눈다. 어쩌면 그 장면이 전부라는 듯이 소설은 결말에 닿는다.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좋아한다. 어떤 이야기가 재미있는가? 자신의 이야기가 재미있는가. 달리 말하면 세상 대부분의 이야기는 재미없다는 말이 된다. 다시 뒤집자면, 타인의 이야기가 내 것이 될 때에야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가 된다. '북해에서'는 그런 이야기의 가능성을 묻는 소설이다. 삶의 죽음을 채우는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이야기의 재미를 찾은 것이다.

<시인>

의료칼럼



강석준 보라안과병원 원장

잡히지 않는 눈 안의 아지랑이, 비문증

까만 점 등 여러 모양의 이물질이 앞에서 따라다니는 것이다.

주로 눈앞에 날파리 같은 것들이 날아다닌다고 해서 일명 '날파리증'이라고도 불린다. 이런 이물질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움직이기도 하고 눈을 감았을 때나 흰색 배경을 보았을 때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은 개인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비문증은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우리 눈 속에는 90% 이상이 물로 채워진 유리체가 존재한다. 유리체는 본래 투명하고 젤리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눈에 들어온 빛은 이곳을 통과한 뒤 망막에 상이 맺혀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한다. 이 유리체가 노화로 인해 혼탁해지고 탄력을 잃어 부유물이 떠다니게 되는데 이때 부유물이 눈에 들어오는 빛을 방해하고 그림자가 지면서 눈앞에 무언가 아른거리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최근에는 노화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이른 나이에 도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장시간 전자기기의 사용이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과 같은 원인이 눈의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근시가 심한 청년층에서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고도근시인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안구의 길이가 앞뒤로 길어 유리체의 변화가 일찍 진행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생리적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이

경우 일상생활에 신경이 쓰여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하지만 시력 저하나 눈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도 필요하지 않다. 환자가 치료를 강력하게 원한다면 레이저나 수술 치료를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치료 후 합병증 문제와 백내장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권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생리적 비문증으로 시야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정면을 주시하면 사라지기도 하니 환자 스스로 적응하거나 되도록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떠다니던 부유물의 크기가 점차 커지고 개수가 많아지거나 눈앞이 번개 치듯 번쩍거리는 광시증이 동반되는 경우, 커튼을 친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면 망막 박리, 망막열공 등 망막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병적 비문증'이라면 시력에 영향을 끼치고 심한 경우 실명을 야기할 수 있으니 원인에 따른 신속한 치료가 즉시 필요하다.

비문증은 본인 스스로가 노화 현상인지, 질환이 원인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고 정확한 진단은 안과 검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처음 증상을 느끼게 되었다면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개수나 모양 등 증상에 상관없이 안과에 내원해서 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눈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지름길이다.

기고

대한민국에서 지방 대학의 존재 의미는?



양성관 동강대 교수

이처럼 줄어드는 대학 입학 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통해 교육 여건이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한 대학들을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어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여 대학의 숫자를 줄여 가고 있다. 2022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일반 대학 9곳, 전문 대학 9곳 등으로 18개 대학이 평가를 통해 사실상 퇴출의 경고를 받은 셈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 대학이 지방 대학이라는 데에 있다.

지방 대학의 존재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지방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 경제의 위기로 연결된다. 지방 대학이 폐교되면 해당 지역의 교육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 최근 폐교된 대학들의 사례에서 드러났다. 평가 점수에 의해 지방 대학을 퇴출시키는 것보다, 점수가 낮은 대학에 대해서 대학 스스로 자정과 적절한 단계를 통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 대학의 존립을 위해서는 첫째로 '지방 대학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30대가 선호하는 반도체나 인터넷,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과 같은 첨단 분야의 기업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꼭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라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가면 취업에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들과 관공서, 대기업, 은행, 병원 등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핵심 산업을 지역으로 옮겨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 대학은 이러한 기업이나 관공서들과 조기 취업 시스템을 통해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 대학의 존립을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지방 대학 안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 학과 중심의 '학교 특성화 및 학과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취업 교육과 평생 교육의 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에는 평생 열 번 정도 직업을 바꾸게 된다고 한다. 지역 산업의 수요에 맞추어 취업 중심의 대학으로의 변신과 평생 교육이 병행되는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지방 대학이 존립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지방 대학에 입학하는 20~30대의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는 대학생의 3분의 2 정도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 현재보다 3분의 1가량만 더 지원하면 지방 대학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졸업생 전원에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고, 이는 지방 대학의 입학 자원 확보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지방 대학은 평가를 통해 퇴출시켜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존재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는 타당한 평가 기준과 신중한 퇴출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 대학은 몸집을 줄여 가며 존립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社說

'하수 처리'가 되레 영산강 수질 악화시킨다니

광주시가 하수 정화를 위해 만든 하수 처리장이 되레 영산강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영산강 수질 악화 원인을 분석한 결과,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 영산강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산강 수질이 최상류인 담양에서 1급수를 유지하다 광주시를 지나면서 4급수로 악화됐고 광산구 신촌동에서 BOD가 7.5mg/L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비춰볼 때 광주 제1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원인이라는 얘기가. 실제로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는 방류 시 BOD(5.0mg/L)와 T-N(총질소) 등 수질 기준에 적합했지만, BOD가 가장 높았던 극락교 지점의 물을 분석해 본 결과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총질소의 7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산강의 평균 BOD는 4.8mg/L로, 낙동강(2mg/L), 한강(1.2mg/L) 등에 비해 최대 일곱 배가량 높은 실정이다. 영산강의 수질이 최악의 수준으로 나빠진 것은 광주시의 세심하지 못한 하수처리 방식 때문인데, 지난 2008년 하수처리장 내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 시설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영산강의 수질 개선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 개선에 착수한 상황이지만, 향후 5년간은 영산강 수질 악화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설 개선 사업의 국비 비율을 높인다면 완공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렇고 지점의 물을 분석해 본 결과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총질소의 7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작 20만 톤 '격리'로 쌀값 하락 막을 수 있겠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초과 생산된 쌀 가운데 20만 톤을 내년 1월 중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초과 생산량 27만 톤 중 나머지 7만 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수매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농도 전남의 현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그동안 시장 격리를 줄기 차게 요구해 온 전남도와 농협 및 농민단체들은 일단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대체로 "이 정도 조치로 쌀값 안정은 어렵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정부의 조치가 너무 지연돼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 9월 29일 쌀 초과 생산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에 나서 달라고 건의했지만 당정의 결정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다. 그러는 사이 쌀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

난 25일 80kg 기준 산지 쌀값은 20만 501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8% 떨어졌다.

격리 물량도 논란이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추산한 초과 생산량은 27만~31만 톤인데 당정은 27만 톤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10만 톤은 시장에 그대로 남게 되는 셈이다. 정부로서는 물가 상승이 부담스럽겠지만, 농민단체들은 "왜 항상 쌀이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한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한다.

따라서 당정은 좀 더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 주식인 쌀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가격을 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이 시장 격리에서 제외된 초과 생산 쌀 전량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매입해 쌀값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쌀 수급 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생산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無等鼓

엇где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립교향악단 송년연주회에 다녀왔다. 이날 공연에서는 17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3번'을 협연했고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연주가 이어졌다. 앙코르곡으로 오랜바흐의 '천국과 지옥' 중 '강강'이 연주될 때는 관객들이 박수로 장단을 맞춰 가며 흥겨운 무대를 연출했다.

이윽고 공연의 막이 내린 뒤, 흥성원 지휘자가 이번 연주를 마지막으로 교향악단을 떠나는 단원 두 명을 소개했다. 35년 동안 시향과 함께했던 비올리스 트 신정문 씨와 오보이를 담당하는 김옥중 씨였다. 두 사람은 감사패를 받고 자신들이 늘 음악을 들려주었던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를 떠났다. 오랫동안 함께해 온 동료의 마지막을 기약하고 축하해 준 시향 단원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몽클했다. 나 또한 오랜 시간 좋은 연주를 들려준 데 대한 고마운 마음을 박수로나마 전할 수 있어 다행이다 싶었다.

고마운 사람들

연말을 맞아 작은 주머니에 시향과 양말 두 켤레를 넣어 아파트 문 손잡이에 걸어 두었다고 했다. 그녀의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사연에 추위가 저만치 날아가는 듯했다.

얼마 전엔 어느 취재원으로부터 2년여만에 전화를 받았다. 당시 시외로 출장을 갔다 가 주재원인 그의 착오로 헛걸음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죄송함이 마음속에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즈음이 되니 꼭 연락을 해 다시 미안함을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덕분에 예나 역시 20년에 서운한 사람이니 고마운 사람이 없나 되 돌아오며, 몇 사람에겐 오랜만에 안부를 묻고 작은 선물을 보냈다. 지난 한 해 코로나의 강을 건너오면서 다들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낸 우리들이다. 2021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고마운 이들에게 소소한 마음을 전해 보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호랑이 해인 2022년 역시 따뜻함과 고마운 마음을 나누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